



주재/홍보실 김익겸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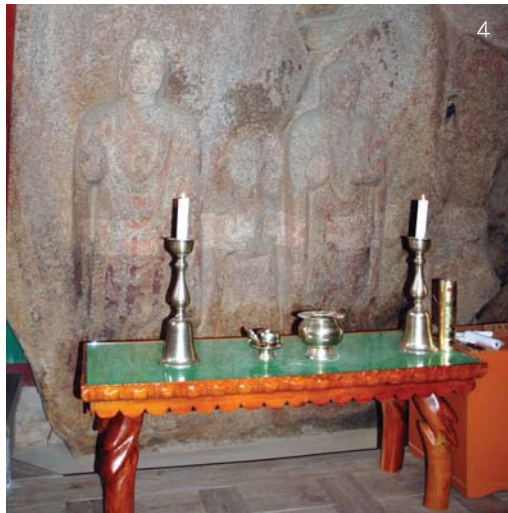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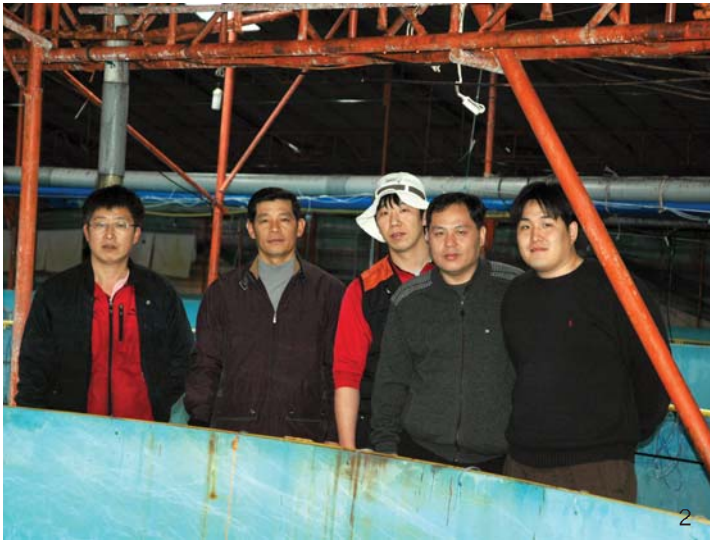
## 한 해 농사로 세 해를 먹고 살 수 있는 태안 대상양식산업

**태**안은 서울에서 200km쯤 떨어져있어 그곳까지 가지면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예닐곱 시간은 족히 걸렸었다. 그런데 이제는 서해안 고속도로 완공으로 1시간 30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편리한 교통으로 서해와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경치가 뛰어난 해수욕장이 줄지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면 이곳을 찾는 피서객들이 적지 않다. 태안반도 꼬트머리에는 만리포와 학암포 해수욕장이 나란히 붙어 있고 태안을 아래쪽으로는 연포를 비롯한 몽산포, 청포대, 백사장 같은 해수욕장이 줄줄이 늘어서 있다. 이처럼 훌륭한 해수욕장이 많은 태안 반도를 비롯한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 일대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1978년에 해안 국립 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공원구역은 안면읍, 남면, 근흥면, 소원면, 원북면, 이북면과 보령군 오천면의 자고도와 고대도를 포함한 328km<sup>2</sup>에 이르는 해안 지역이다. 나라안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태안군은 가야산맥에서 갈라져 나온 많은 산줄기들이 동쪽으로는 가야산, 팔봉산, 서쪽으로는 백화산을 형성하였지만 평균 높이가 해발 250m가 채 안되는 낮은 야산에 펼쳐지는 풍요로운 전원 풍경과 들쭉날쭉한 해안선의 다채로운 굴곡과 기암 괴석과 해송림 따위가 함께 어우러져 자연 풍치가 뛰어나 해안 공원이 될 만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풍요로운 땅 태안군 남면 신온리에 자리잡고 있는 대상양식산업을 찾았다. 대상양식산업은 4,000평의 대지에 수면적 1,500평으로 원형 8m수조 80개에서 연간 넙치 300만미, 새우 8,000만미, 돔류 1,000만미, 꽃게 2,000만미를 생산하고 있는 중요 생산업체로 서해안 자연상태의 바닷물로 급수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있으며, 서해안 갯벌에 무한히 있는 유용 미생물을 직접 배양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이것을 사료에 흡착시켜 치어 생산시 급여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수온에 민감하여 비교적 여름 수온이 높아 서해안에서는 여름철에는 생산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냉각기를 사용하여 여름 광어를 생산할 정도로 대상양식산업의 강상우 대





1. 양식산업의 희망 대상 양식산업의 전경  
주소: 충남 태안군 남면 신운리 652-9271  
전화: 041)674-9270 팩스: 041)674-9271
2. 대상양식산업의 개발 일꾼들 영양제 위주의 생산기법으로 종묘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진 좌측에서 2번째가 강상우 대표이다.
3. 내부전경
4. 보물432호인 태안읍 동문리의 벼랑새김 삼존 불상. 백제 시대에 새긴 것으로 짐작되는 이 불상은 여느 삼존불과는 달리 여래상이 양쪽에 보살상이 가운데에 있어 독특하다.

표는 종묘 생산에는 대가이다. 경남 출신으로 통영 수산대 양식과를 졸업한 후 태안에 소재한 진로양식사업부에 입사하게 되어 이곳 태안에서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한다. 강상우 대표는 2002년도 종묘생산부분에서 신지식인으로 선정되기도 해 그 만의 실력을 인정 받기도 하였다. “이제는 종묘생산에서 왕도가 없습니다. 개발하여 제품화 하기에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고 또 정작 개발하였다고 해도 중국산의 저가 공세에 밀려 나기 일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광어입니다. 광어는 고급 어류 식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산원가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비자들도 더이상 고급 어류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식단의 변화에 더 많은 종류의 어족의 종묘 생산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열악한 정부 지원과 양식 업체의 외면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바람직한 변화는 꽃게 종묘는 100% 자원조성용으로 정부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판로가 확정되어있는 셈이죠. 그러나 다른 종묘는 그렇지 못합니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양식산업의 쇠퇴를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많은 악조건에서도 곳곳이 한 업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은 대상양식산업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대상양식산업이 상품성이 뛰어난 어족 개발에 전념한다면 미약하나마 쓰러져가는 우리나라 양식산업에 초석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